

22년 10월

퇴직연금 문안 편지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 투자자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매우 급하고 빠르게 (그리고 뒤늦게) 시작되면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높은 배당에 대해 투자했던 저희 IRP 및 ISA 투자금들도 꽤 많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으로 인해 더 올라간 배당율 수준은 장기 투자자들에게엔 투자하기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5~10년이 넘는 장기적 관점이라면, 지금처럼 올라간 수준의 배당률은 미래에 좋은 씨앗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의뢰로 진행된 감사로 인해, 저희가 ETF 비중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의 경우엔 따로 연락을 주셔서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자산 운용에 한 가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까지 쳐다보지도 않았던 채권이 이제 투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10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한국 기준 금리가 약 50bp 수준의 추가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채권 투자에 유리한 수익률이 확보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이 넘는 채권의 경우 4%가 흔하게 될 것이고 장기 채권은 6~7% 수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발행이 결정된 신한지주 후순위채권의 경우, 월지급식으로 설정해 5.7%대의 금리로 3천억원대 발행이 되었습니다. 장기 채권의 경우 5% 이상의 금리가 10월 이후에는 흔하게 목격될 것입니다.

이는 곧 채권 투자하기 좋은 때가 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채권에 대해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물론 한국은행 금통위가 지나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채 2년물이 4%를 넘어섰고, 10년물도 4%를 넘나 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채권을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2년 10월

퇴직연금 문안 편지

그러나 미국 채권을 매입할 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달러-원 환율이 역사상 가장 낮은 (원화가치 절하)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역사를 되돌려보면, 이러한 때는 달러를 매도하는 것이 나았고, 1100원 미만에서는 달러를 매수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으로 깨질 가능성이 과거보다 많이 올라왔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게 된 것은 기존 포트가 절대 비싸지 않은 쪽으로 세팅을 했고, 그 세팅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동안 우리가 포지션을 잡았던 기업들의 주가는 저평가인 상태, 아니 추가적으로 더욱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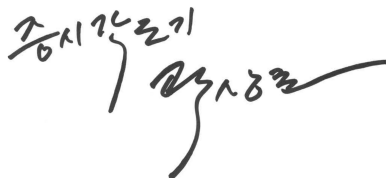
일단 해당 보유 지분은 그대로 들고 가셔도 될 거 같고, 일부 추가하는 방향도 나쁘지 않습니다.

투자는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시계열을 길게 가지고 가는게 어려운 순간들을 넘기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장기 시계열로 보는, 퇴직자금 운용은 일반투자자들이 다른 투자보다 더 수익을 확보하기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꾸준히 발전해서,
더 나은 퇴직 자금 운용 도우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벼들이 황금벌판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장관인 때입니다.

올해 저희는 투자에서 추수한 것들이 없지만, 올해 거두지 못한 추수는 내년에 올해 뭉까지 추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래도록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좋은 수확과 추수의 때를 맞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가을날 되십시오~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각도기 kwaksangjun 올림.